

2021년 이후 인천대 후기산업사회연구소 집단적 학술연구의 궤적 : 학술지 <후기산업사회연구>의 등재후보지 선정까지의 ‘지식사회학’

양 준 호*

〈차 례〉	
I. 들어가며: 인천대 후기산업사회연구소의 연구주제어, 목적, 그리고 방법론	III. 학술지 <후기산업사회연구>의 학문적 중요성
II. 인천대 후기산업사회연구소 연구의 특성과 주안점	IV. 인천대 후기산업사회연구소의 학술 행사 및 편집위원회 활동
	V. 나오며

핵심주제어: 후기산업사회, 후기산업사회론, 정치경제학, 정치철학, A. 네그리, M. 하트, 대안근대성 연구

I. 들어가며

: 인천대 후기산업사회연구소의 연구주제어, 목적, 그리고 방법론

2021년 3월 이후, 인천대학교 후기산업사회연구소는 정치경제학적인 문제의식을 기점으로 하여 인접 사회과학과 인문학 간의 학문적 통섭을 중시하면서, 탈공업 혹은 탈산업, AI를 기반으로 하는 4차 산업혁명, 정보화, 네트워크화, 비물질 노동/인지 노동, 사회적/네트워크적 생산, 일국 너머의 도시/로컬, 자치 등을 키워드로 하는, 이른바 ‘후기산업사회(Post Industrial Society)’에 대한 이론적, 실증적 논의에 초점을 맞추고, 이와 같은 자본주의 체제의 새로운 국면 혹은 시대에 직면한 우리 사회 내 ‘지역(Local Society)’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실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연구를

2026년 01월 14일 접수, 2026년 02월 10일 수정, 2026년 02월 23일 게재확정
* 인천대학교 경제학과 교수(Email: junho@inu.ac.kr)

‘학제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운영되어 왔다¹⁾. 즉 연구의 방법론은 ‘후기산업사회’ 개념에 두고 연구 대상과 연구 목표로서의 대안 제시는 ‘지역’에 초점이 맞춰져 왔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2021년 3월 이후(양준호 현 소장 취임 이후) 동 연구소는 ‘후기산업사회’ 도래 이후 나타나고 있는 사회구조 변화 귀결로서의 ‘지역’ 문제, 특히 지역 차원의 기술변화, 자본의 공간전략 변화, 노동방식의 변화, 고용구조 변화, 금융구조 변화, 산업구조 변화에 따른 지역경제 및 지역사회의 피폐화 문제에 주목하면서 이에 대한 대안으로서의 ‘지역순환경제(Local Endogenous Development)’에 관한 이론적, 실증적, 정책론적 연구의 국내 대표 거점으로 급부상하기에 이르렀다²⁾. 특히 동 연구소는 전국의 관련 연구자들을 학제적으로 또 통섭적으로 아우르는 공동 학술연구, 대안적 지역발전 혹은 후기산업사회론적 지역 분석에 관한 연구용역의 지속적인 수행, 2021년 3월 이후 지금까지 매월 1회 개최되고 있는 학술세미나, 그리고 콜로키움, 집담회, 국제심포지엄, 정책전문가 아카데미 개최 등을 통해, ‘후기산업사회 도래의 귀결로서의 지역 피폐화’ 문제에 특화된 대학 연구소로, 또 학계뿐만 아니라 후기산업사회 일

- 1) 인천대학교 후기산업사회연구소는 ‘인천대학교 산업연구소’의 명칭으로 1987년 2월에 인천대 부설 법정연구소로 설립되었다. 동 연구소의 ‘산업연구소’ 단계에서는 타 대학 경상 계열 연구소와 동일하게 산업, 경제, 무역, 경영 등의 카테고리에 속하는 매우 광범위한 연구 주제들을 다뤄 왔으며, 전문 학술지는 발간하지 않고 ‘산업연구소 세미나’를 정기적으로 개최하여 방법론 및 연구주제에 관한 특화를 지향하지 않고 대학 내 교수 연구자들의 ‘학술적 결사’를 구축하려는 데 중점을 두었다는 점이 의의가 있다. 그런데 동 연구소는 2009년에 ‘후기산업사회연구소’로 명칭을 바꾸면서 방법론으로서 정치경제학 및 정치철학 등의 접근법에 초점을 맞추게 되었고, 연구주제로서 ‘후기산업사회’ 개념에 특화하기 시작했다. 연구소 명칭을 개정한 이후 2021년 2월까지의 단계에서는 이와 같은 접근법과 개념에 의거하여 ‘후기산업사회’를 선도적으로 논의한 유럽 및 일본 등의 연구들을 총서의 형태로 번역 출판하는 작업이 주를 이루었다. 2021년 3월 이후부터는 그 전 단계의 연구 방법론을 계승하면서도 전국을 아우르는 ‘후기산업사회’ 관련 연구자들과의 공동연구를 지향하고, 이러한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보다 학제적인 연구 체제를 구축하기에 이르렀다. 그와 같은 기초 및 접근법의 변화는 ‘후기산업사회’ 연구와 관련하여 통섭적 학제 연구가 가능한 연구주제에 대한 탐색의 계기가 되었고, 그 연구주제들은 본문에서 언급한 것들이다. 이를 계기로 기존의 학술적 결사의 목적, 해외 유명 연구의 번역 출판의 기초를 넘어 전문 학술지 발간과 그 운영을 통한 학제연구적 네트워크의 구축, 공동저서의 출판 등에 연구소 운영의 초점을 맞추게 되었다.
- 2) 동 연구소의 ‘지역순환경제’에 관한 이론적, 실증적, 정책적 연구는 주로 전국의 관련 연구자들을 아우르는 집단연구에 의해 수행되었는데, 그 연구결과는 양준호 외(2022) “시민이 주도하는 지역순환경제: 위기의 지역경제, 그 새판 짜기” 한울아카데미 및 양준호 외(2023) “대안으로서의 지역순환경제: 반독점자본, 탈성장, 시민적 통제의 대안적 지역경제를 모색하며” 로컬퍼스트와 같은 공동저서 단행본으로 출판되었으며, 이와 같은 집단연구를 계기로 동 연구소는 국내 ‘지역순환경제’ 연구의 거점으로 자리잡게 된다.

반 및 지역문제 일반에 관여하고 있는 전국 각지의 시민사회와 적극적으로 연계하는 ‘실천적인’ 연구소로 기능하기 시작했다.

특히, 인천대학교 후기산업사회연구소는 위에서 언급한, 국민국가 및 지역사회를 크게 규정하고 있는 현대자본주의의 중요한 경향으로서의 ‘후기산업사회(Post Industrial Society)’ 개념에 전방위적으로 또한 통섭적으로 접근하기 위해, 다음 장에서 언급하고 있는 <그림 1>과 같은 연구 범주 및 연구 영역들을 설정하고 있다. 동 연구소는 현대자본주의(1980년대 이후~) 구조변화 양태로서의 ‘후기산업사회’를 산업 및 생산 측면, 노동 측면, 국가 소유 및 사적 자본 소유 너머의 ‘공통적인 것(The Common)’의 발견 및 운영 측면, 지역 및 도시 측면으로 연구 범주와 연구 영역을 구분하여³⁾, 국내에는 그간 집단적, 체계적 연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던 ‘후기산업사회’ 개념에 대한 전방위적인 혹은 통섭적인 학술 접근 및 이 개념 논의를 토대로 하는 지역 및 도시 차원의 대안들(주로 ‘후기산업사회’ 체제하에서 가장 현저하게 변용되고 있는 지역 및 도시와 관련된 대안들)을 개발, 발신하는 것을 목적으로 운영되어 왔다.

<표 1> 2021년 3월 이후, 인천대 후기산업사회연구소의 연구활동 및 사업내용의 개괄

구분	특성화·전문화 목표	세부 실천내용	추진실적
연구	사회구조 변화의 귀결로서의 『지역』 문제에 관한 학술연구 활동 강화	◇ 논문 게재 및 저서 출판 등	◇ 논문: 40건 (이중 SCI급 6건) ◇ 저서: 21건
	연구성과의 활용 확산	◇ 학술세미나/국제컨퍼런스/콜로키움 개최 등을 통한 연구성과의 확산	◇ 국제컨퍼런스: 10건 ◇ 국내 학술세미나: 48건 ◇ 콜로키움: 5건

3) 이와 같은, ‘후기산업사회’ 개념에 관한 연구 범주 구분은 탈공업화(포스트 포디즘), 정보화, 네트워크화, 비물질 노동의 일반화, 사회적/네트워크적 생산의 일반화 등에 초점을 맞춰 현대자본주의의 구조변화를 논의하고 또 이와 같은 논의를 토대로 ‘후기산업사회’의 성격 및 의미, 그리고 그 경향 하에서의 자본주의 양태를 정치경제학 및 정치철학의 방법론을 활용하여 탐구하고 있는 Michael Hardt and Antonio Negri(2000) “Empire” Harvard University Press[안토니오 네그리, 마이클 하트/윤수중 옮김(2001) “제국(Empire)” 이학사], Michael Hardt and Antonio Negri(2009) “COMMONWEALTH” Harvard University Press[안토니오 네그리, 마이클 하트/정남영, 윤영광 옮김(2014) “공통체(Common Wealth: 자본과 국가 너머의 세상)” 사월의 책], Michael Hardt and Antonio Negri(2017) “Assembly” Oxford University Press[안토니오 네그리, 마이클 하트(2020) / 이승준, 정유진 옮김 “어셈블리(Assembly): 21세기 새로운 민주주의의 질서에 대한 제언” 알렙]에 의거하고 있다.

구분	특성화·전문화 목표	세부 실천내용	추진실적
		◇ 학술지 (『후기산업사회연구』) 발간	◇ 총 7호 발간 ('25년 6월 현재)
	사회구조 변화와 『지역』 문제에 관한 연구를 위한 글로벌 네트워크 구축	◇ 일본 주오대 경제연구소와의 MOU 체결 ◇ 일본 간사이대학 소시오네트워크전략연구 기구와의 MOU 체결 ◇ 서울대 도시사회연구센터와의 MOU 체결 ◇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인천지원)과의 MOU 체결	◇ '22년 11월 ◇ '21년 10월 ◇ '22년 5월 ◇ '22년 5월
교육	지역맞춤형 인재양성 기반 조성	◇ 고용노동부/한국사회적경제진흥원 주관 (2022년 사회적경제 선도대학 운영사업) 선정 ('22년 2월)	◇ 예산규모: 139,800천원 ◇ 수강생 규모: 총 47명 중 41명 수료
	산학연계 교육과정 운영	◇ <ESG 글로벌 리더> 양성을 위한 전문 교육 과정) 운영 ◇ <지역순환경제 정책전문가 아카데미> 운영	◇ 1, 2차 진행 ('23.04~06, '24.11~12) ◇ 1, 2차 진행 ('21.12.~'22년 1월)
기타 제반 활동	'지역순환경제전국네트워크' 설립 및 대외활동 강화	◇ '지역순환경제' 개념의 대중화 촉진 ◇ '22년 6월 지방선거 출마 후보자를 대상으로 공동공약 제시 및 지역순환경제의 의제 확산	◇ '21년 10월 ◇ 정책협약 체결 및 정책발표 기자회견 ('22년 5월)- 동 연구소 양준호 소장이 공동대표
	외부기관과의 연계·협력 강화	◇ 외부연구비 수주	◇ 정부, 지방자치단체: 19건 ◇ 민간: 7건

주: 표의 내용은 2025년 6월 현재를 기준으로 하였음

나아가, 위에서도 언급했지만, 동 연구소는 관련 연구 영역들에 대한 학술적인 탐구와 동시에 학술화된 지식 및 정보를 '후기산업사회'의 핵심 양태인 가치의 사회적, 네트워크적 생산 경향에 맞춰 학술 영역에 대해서 뿐만 아니라, 시민사회, 시민 개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후기산업사회 학술세미나'를 매월 1회(매월 4번째 일요일 오후 3시)에 개최하여 '대중을 향해' 발신해 오고 있다. 이는 동 연구소가 생산하는 학술적 연구들의 현실적, 실천적 가능성을 면밀하게 탐색하기 위한 전략적 연구/대응의 일환이며, 이는 학계와 시민사회 간의 연계 및 '공동제작(Co-Production)'을 토대로 하는 새로운 대학 연구소 모델의 정립, 즉 '후기산업사회' 시대 하에서의 학술기관의 새로운 모델 정립이라는 동 연구소의 실무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함이었다.

본고는 2021년 3월 이후 인천대학교 후기산업사회연구소가 나름 성취한, 그간의 연구 성과를 '지식사회학적으로' 검토함으로써, 정치경제학, 정치철학, 사회학 등에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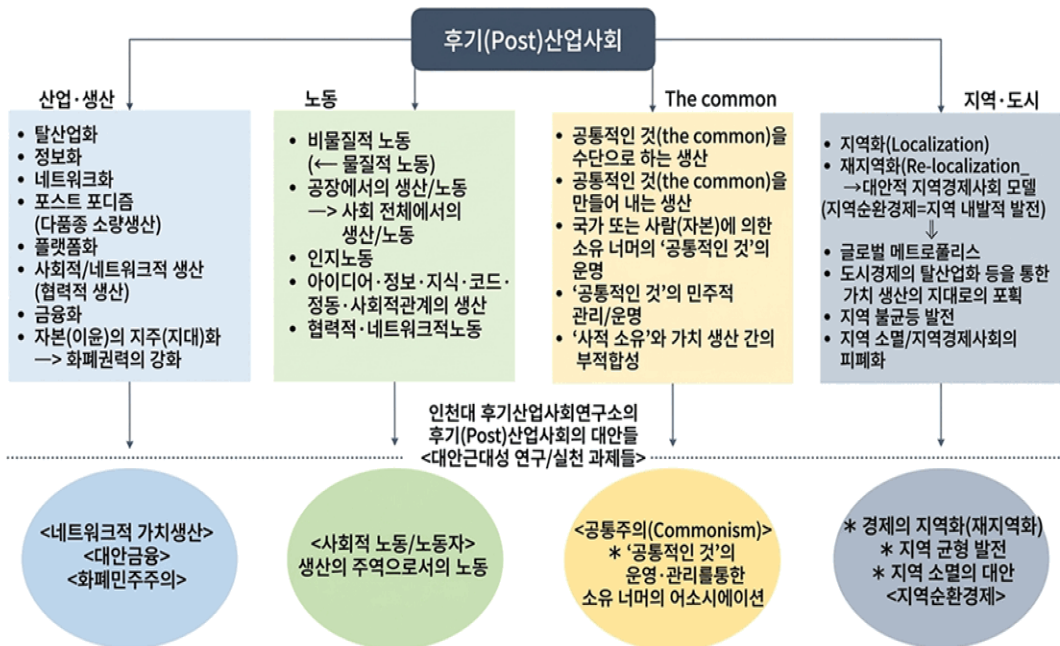
다뤘었던 이른바 ‘후기산업사회론’의 심화에 기여하고자 하며, 또 이를 통해 현대 대학 연구소의 학제 간 연구의 가능성과 그 단서를 찾아내고, 인천대학교 학내뿐만 아니라 전국의 여러 연구자에게 이번에 새롭게 등재 후보지로 선정된 학술지 <후기산업사회연구>의 기본 방향과 문제의식을 알려 그 필진과 독자의 저변을 넓히고자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II. 인천대 후기산업사회연구소 연구의 특성과 주안점

2021년 2월까지의 인천대학교 후기산업사회연구소는 다양한 학문 통섭적 접근을 토대로 하여, 주로 탈공업화사회, 디지털경제, 신기술, 산업구조변화, 사회구조변화, 고용구조변화, 그리고 정치경제학적 미래사회론(칼 마르크스의 Association 이론) 등과 같은 ‘후기산업사회’ 개념을 구성하는 제 하위 주제들에 관한 외국의 저명한 학술 저서들을 번역한 연구총서를 지속적으로 발간해 왔다. 앞에서도 언급한 바 있듯이, 이와 같은 학술 작업을 위해 2021년 2월까지 동 연구소의 소장을 맡은 전광일 교수(2021년 2월 말 퇴임)는 2010년에 본 연구소의 명칭을 ‘인천대학교 산업연구소’에서 ‘인천대학교 후기산업사회연구소’로 변경한 바 있다.

그런데 2021년 3월 양준호 교수가 소장에 취임한 이후부터 동 연구소는 위에서 언급한 기존의 ‘후기산업사회’ 관련 전문 학술서 번역 연구의 성과를 발전적으로 계승하되, 기존의 관련 연구 주제들이 체계화되어 있지 않은 점을 고려하여 ‘후기산업사회’ 개념을 앞에서 언급한 Michael Hardt and Antonio Negri(2000, 2009, 2017)의 논의를 토대로 하여 동 연구소의 특화 연구 주제들을 재정립, 체계화하기 시작하였다. <그림 1>에서 명시하였듯이, 2021년 3월 이후의 인천대 후기산업사회연구소는 Michael Hardt and Antonio Negri(2000, 2009, 2017)의 논의를 적극적으로 수용하면서 ‘후기산업사회’ 개념을 산업/생산, 노동, 커먼즈(The common), 그리고 지역/도시 영역들로 구분하였다. 이는 ‘후기산업사회’ 개념에 대한 연구를 체계화함과 동시에 국내에 유관 학술기관들과의 차별화를 꾀하기 위함이었다. 참고로, 국내에는 현대자본주의의

구조변화 양태를 나타내는 ‘후기산업사회’ 개념에 특화하여 이를 체계적으로 다루는 대학 연구소 등의 학술기관이 부재한 상태이며, 또 나아가 ‘탈공업화론’의 이름으로 주로 사회학적 연구 혹은 정치철학 연구 영역에서 원자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던 ‘후기산업사회’ 관련 연구들과 방법론적으로 차별화하는 것 역시 필요한 상황이었다⁴⁾.



<그림 1> 인천대 후기산업사회연구소의 특화 연구 영역 및 주제들

4) 미국, 유럽, 일본의 ‘후기산업사회’ 관련 연구가 경제학(정치경제학), 철학(정치철학), 도시인문학, 사회학(도시사회학), 과학철학 등 여러 연구 방법론 간 통섭적 접근을 토대로 이루어지고 있는 반면에, 국내에서는 주로 철학과 사회학 영역에서 다루어져 왔다. 전자 국가들의 관련 연구가 매우 총체적인 형태로 전개되어 오고 있다면, 국내의 그것은 매우 단편적이며 원자적이다. 예컨대, 인천대학교 후기산업사회연구소와 공동연구를 위한 MOU를 맺은, 일본 오사카에 소재한 칸사이대 소시오네트워크전략연구기구의 경우, ‘후기산업사회’ 하에서의 소비자 행동의 변화에 관한 미시적인 연구에 특화하고 있는데, 이러한 주제의 연구를 위해 경제학(실험경제학, 행동경제학), 사회학, 행정학(정책과정론), 심리학, 문화인류학 등 매우 다양한 인접 학문들 간의 통섭 연구를 수행하고 있다. 이와 같은 사례를 통해 파악할 수 있는 것은 ‘후기산업사회’ 개념 자체가 매우 폭 넓은 영역들과 연관되어 있고, 또 특정 학문 영역에서 특화하여 다루어 온 주제가 아니라라는 점과 이 개념에 대한 연구를 위해 연구 주제를 특화하여 그 통섭적 연구를 체계화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는, ‘후기산업사회’ 연구가 지닌 ‘통섭적 연구’ 혹은 학제 간 연구로의 발전/확대 가능성과 무관하지 않으며, 나아가 광범위한 개념을 추상적으로 다루는 것보다 특정 주제에 초점을 맞춰 그 통섭적 연구를 ‘추상에서 구체로’ 상향해서 전개하는 것이 현대의 후기산업사회론 연구의 일반적인 경향임을 시사한다.

〈그림 1〉을 통해 알 수 있듯이, 인천대학교 후기산업사회연구소는 네 가지 연구 상위 범주 영역별로 그 하위에 다음과 같은 세부적인 연구 주제들을 설정하고 있다. 첫째, 산업/생산 범주와 관련해서는, 탈산업화(탈공업화), 정보화, 네트워크화, 이른바 포스트 포디즘(Post Fordism: 자본의 새로운 생산전략으로서의 다품종 소량생산), 경제의 플랫폼화, 사회적/네트워크적 생산(협력적 생산), 금융화, 자본의 지대 추구 현상을 하위의 세부 연구 주제로 설정하였다. 둘째, 노동 범주와 관련해서는, A. 네그리 후기산업사회론의 키워드로 간주할 수 있는 이른바 〈비물질적 노동(1970년대까지의 자본주의 시스템 하 주요 경향이었던 물질적 노동과 대비되는 개념)〉, ‘공장에서의 생산/노동에서 사회 전체에서의 생산/노동으로의 변형’, 인지노동(Cognitive Labour)⁵⁾, 아이디어-정보-지식-코드-정동(Affect)-사회적 관계의 생산, 협력적/네트워크적 노동을 하위의 세부 연구 주제로 설정하였다. 셋째, 커먼즈 범주와 관련해서는, 이른바 ‘공통적인 것(The common)’을 수단으로 하는 생산, ‘공통적인 것’을 만들어 내는 생산, 국가 또는 시장(자본)에 의한 소유 너머에 있는 ‘공통적인 것’의 운영 방식, 사적 소유와 가치 생산 간의 관계 등을 하위의 세부 연구 주제로 설정하였다. 넷째, 지역/도시 범주와 관련해서는, 지역화(Localization), 재지역화(Re-localization), 지역화 또는 재지역화에 따른 대안적 지역 경제사회 모델(이른바 ‘지역순환경제(Local Endogenous Development)’ 또는 지역 내발적 발전), 글로벌 메트로폴리스, 도시경제의 탈산업화 등을 통한 가치 생산의 지대로의 포획, 지역 불균등 발전, 지역소멸 및 지역 경제사회의 피폐화 등을 하위의 세부 연구 주제로 설정하였다. 이와 같은, 네 가지 연구 상위 범주 및 그 하위에 설정된 세부 연구 주제들은, 위에서도 언급했듯이 자본주의 생산시스템의 탈산업화, 비물질노동화, 자본의 지대화 등과 같은 현대적 경향들에 초점을 맞춰 논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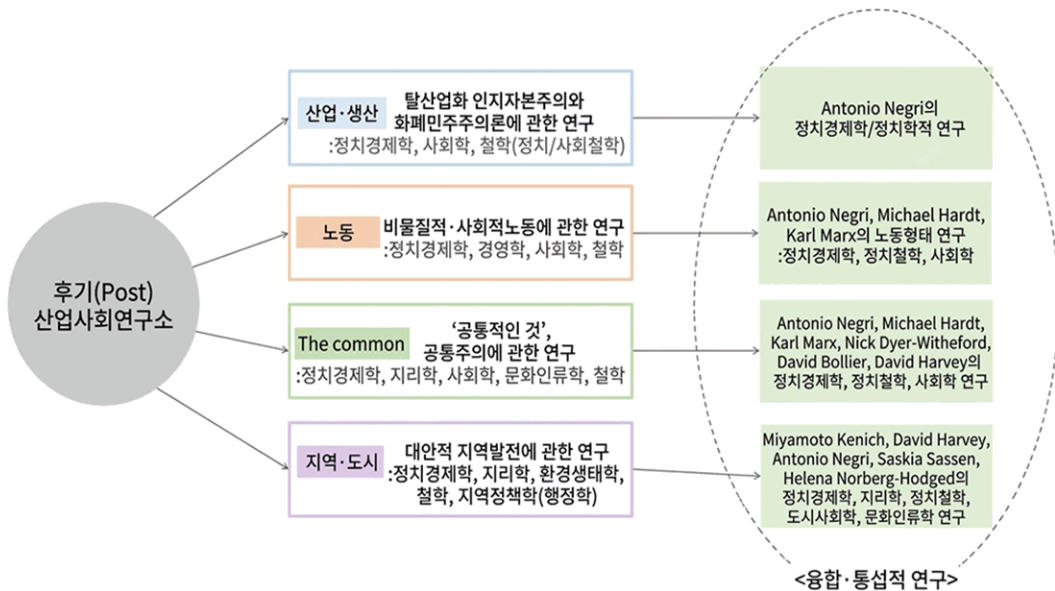
5) 여기서의 ‘인지노동’은 인천대 후기산업사회연구소가 적극적으로 계승하고 있는 A. 네그리의 후기산업사회론이 중시하는 개념으로, 자본주의 생산시스템의 후기산업사회 단계를 지칭하는, 이른바 ‘인지 자본주의’ 하에서의 인간 노동의 핵심 양태를 표현한다. A. 네그리는 현대자본주의의 후기산업사회 단계에서는 생산의 중심이 육체노동에서 인지적, 감정적(정동적), 소통적 능력을 사용하는 ‘비물질적 노동(Immaterial Labour)’으로 이행했다고 간주하면서, 과거에는 기계가 생산의 중심이었으나 인지 자본주의(후기산업사회 단계) 하에서는 노동자의 지식과 협력 능력 자체(인지적 능력)가 생산의 주된 원천으로 작용하기 시작했음을 강조한다. 이는 노동자가 생산과정에 더 많은 주도권을 가질 수 있는 잠재력을 의미하는, A. 네그리가 개념화한 ‘생산력의 내재화’로 불리는 후기산업사회 단계의 중요한 현상이다.

하는 정치경제학, 정치철학, 사회학, 지리학 등의 후기산업사회론에서 다루어지고 있는 것들이며, 특히 자본주의의 후기산업사회 단계에서 거세지고 있는 자본의 생산, 노동, 커먼즈, 지역/도시에 대한 추출(Extraction)을 비판적으로 논의하는 연구들에서 공통적으로 찾아볼 수 있는 것들이다.

인천대학교 후기산업사회연구소는 이와 같은 세부 주제들에 대한 학술연구를 기반으로 하여 후기산업사회 단계 하 ‘지역/도시 차원의 대안들’을 제시하는 실천적 연구 영역(이른바 ‘대안근대성’ 연구 영역)에 있어서도 <그림 1> 하단의 내용과 같이 연구 주제를 명확하게 설정하고 있다. 첫째, 산업/생산 차원의 대안과 관련해서는, 세부 주제들에 관한 연구를 토대로 하여 이른바 ‘네트워크적 가치 생산’, 대안금융(Alternative Finance), 그리고 이른바 ‘화폐민주주의’⁶⁾ 개념을 연구 주제로 설정하고 있다. 둘째, 노동 차원의 대안과 관련해서는, 세부 주제에 관한 연구를 토대로 하여 이른바 ‘사회적 노동/노동자(Social Labour)’ 개념에 초점을 맞춰 ‘생산의 주역으로서의 노동’을 연구 키워드로 설정하고 있다. 셋째, 커먼즈 차원의 대안과 관련해서는, 위의 세부 주제에 관한 연구들을 토대로 하여 이른바 ‘공통주의(Commonism)’ 개념에 초점을 맞춰 ‘공통적인 것’의 운영 및 관리를 기존의 자본주의적 소유 너머의 ‘어소시에이션(Association)’ 개념과 이어내는 것을 연구 주제로 설정하였다⁷⁾. 넷째, 지역/도시 차원의 대안과 관련해서는, 위의 세부 주제에 관한 연구들을 토대로 하여 경제의 지역화(또는 재지역화), 지역균형발전, 지역소멸 및 지역사회 피폐화 현상에 대한 대응 등을 목적으로 하는 이른바 ‘지역순환경제(Local Endogenous Development)’ 개념을 매우 중요한 실천적 연구 주제로 설정하고 있다.

6) 여기서의 ‘화폐민주주의’는 발권력(화폐 발행 권한)을 민간 영리은행이 아닌 국가 혹은 지자체가 시민사회가 주도하는 민주적 통제 하에서 행사하여, 금융소득보다는 시민의 실질소득을 높이고 평등한 부의 배분을 추구하는 체제를 말한다. 이와 관련하여 국내에서는 ‘화폐민주주의연대’로 불리는 시민사회단체가 실천적인 운동을 전개하고 있는데, 그 이론적 문제의식에 관해서는 제라르 푸세, 서익진/김준강 역 “화폐의 비밀” 도서출판 길(2021)을 참조하라.

7) 인천대학교 후기산업사회연구소는 여기서의 ‘공통주의(Commonism)’ 개념과 관련하여 2024년 9월부터 2024년 12월까지 전국 각지의 연구자 및 실천적 활동가들과 함께 매주 1회의 연구세미나를 개최/운영하면서 ‘공통주의’에 관한 유럽의 최신 이론서인 Simon Sutterlützi · Stefan Meretz, “Make Capitalism History: A Practical Framework for Utopia and the Transformation Society” Palgrave Macmillan(2023)을 윤독한 바 있으며, 현재 번역 출판을 준비하고 있다.



〈그림 2〉 인천대 후기산업사회연구소 연구 영역별 학문 방법론 및 주요 이론적 입장

인천대학교 후기산업사회연구소는 〈그림 1〉에서 명확하게 설정한 각 연구 범주별 핵심적인 세부 연구 목표(대주제)와 각 연구 범주별 학문 방법론 및 주요 이론적 입장도 〈그림 2〉와 같이 구체화하고 있다. 첫째, 산업/생산 연구 영역과 관련해서는 〈탈산업화(탈공업화) 인지자본주의와 화폐민주주의론에 관한 연구〉를 대주제로 설정하였으며, 이 연구 영역은 정치경제학, 노동사회학, 철학(정치철학/사회철학)의 방법론을 활용하는데, 주로 각주 1에서 언급한 Michael Hardt and Antonio Negri(2000, 2009, 2017)의 이론적 입장에 의거한 연구를 수행하고 있다. 둘째, 노동 연구 영역과 관련해서는 〈비물질적/사회적 노동에 관한 연구〉를 대주제로 설정하였으며, 이 연구 영역은 정치경제학, 노동사회학, 경영학, 철학(정치철학/사회철학)의 방법론을 활용하는데, 주로 Michael Hardt and Antonio Negri 및 Karl Marx의 노동형태 및 노동과정에 관한 논의에 초점을 맞춘 연구를 수행하고 있다. 셋째, 커먼즈 연구 영역과 관련해서는 〈공통적인 것, 공통주의에 관한 연구〉를 대주제로 설정하였으며, 이 연구 영역은 일반적으로 정치경제학, 지리학(사회지리학, 경제지리학, 정치지리학), 사회학, 문화인류학, 정치철학 등의 영역에서 다루어져 왔는데, 동 연구소는 Michael Hardt and Antonio Negri,

Karl Marx, Nick Dyer-Witheford, David Bollier, 그리고 David Harvey의 정치경제학, 정치철학, 사회학, 지리학 연구/논의를 이론적 기반으로 활용한다. 넷째, 지역/도시 연구 영역과 관련해서는 <대안적 지역발전에 관한 연구>를 대주제로 설정하였으며, 이 연구 영역은 일반적으로 정치경제학, 지리학(사회지리학, 경제지리학), 환경생태학, 정치철학 및 사회철학, 그리고 지역정책학(행정학 계열)의 방법론을 필요로 하는데, 동 연구소는 ‘지역순환경제’의 세계적인 대가로 평가되고 있는 Miyamoto Kenich의 논의들, 국내 ‘지역순환경제’의 대표 연구자로 손꼽히고 있는 인천대학교 후기산업사회연구소 소장 양준호가 편저자로 참여한 양준호 외(2022, 2023)⁸⁾, 마르크스주의 도시 연구의 개척자로 알려져 있는 David Harvey, Michael Hardt and Antonio Negri, Saskia Sassen, 그리고 Helena Norberg-Hodge의 정치경제학, 지리학, 정치철학, 도시사회학, 그리고 문화인류학 연구 및 논의를 핵심적인 이론적 기반으로 활용하고 있다.

이와 같은, <그림 2>에 명시된 각 연구 범주별 대주제 및 학문 방법론을 통해 알 수 있듯이, 인천대학교 후기산업사회연구소는 특정 학문에 경도되지 않고 사회과학 전반 및 인문학을 가로지르는 학제적, 통섭적 연구를 지향하고 있으며, 또 이는 동 연구소의 학술지인 <후기산업사회연구>에 수록된 논문 집필자들의 방법론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그리고, 인천대학교 후기산업사회연구소는 2021년 3월 이후 지금까지 ‘후기산업사회’에 대한 개념적/이론적 문제의식을 토대로 하여, 현대자본주의의 구조 변화를 초래하는 경향으로서의 ‘후기산업사회’가 초래한 귀결로서 지역의 피폐화, 지역소멸 등의 ‘지역/도시’의 위기에 대한 분석과 그 대안을 제시하는 연구에 집중/특화해 왔다. 특히 그 대안으로서, 즉 ‘후기산업사회’ 시대가 초래하는 지역 위기의 대안으로서 ‘지역순환경제’ 개념에 초점을 맞춘 연구들이 학술지 <후기산업사회연구>에 대거 수록되었다. 물론 ‘지역순환경제’ 뿐만 아니라 ‘지역’에 관한 다양한 연구들이 이 학술지에 수록되었는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들 연구의 대부분이 ‘후기산업사회’ 개념을 기반으로 하는 현실 인식을 바탕으로 한다는 점이다. 예컨대, 2024년 8월 말에 발간된 <후기산업사회연구> 제6호의 경우, 기존의 학술지 논문 구성 패턴과 달리,

8) 양준호 외(2022) “시민이 주도하는 지역순환경제: 위기의 지역경제, 그 새판짜기” 한울아카데미, 양준호 외(2023) “대안으로서의 지역순환경제: 반(反)독점자본, 탈성장, 시민적 통제의 대안적 지역경제를 모색하며” 로컬퍼스트에 의거하고 있는데, 이 두 문건은 최근 이루어진 국내 <지역순환경제> 관련 연구의 대표적인 저작들이다.

지역발전을 위한 대안을 직접적으로 다루지 않고 ‘후기산업사회’ 개념을 직접적으로 논의하는 이론연구 논문들을 기획 특집으로 다룬 바 있다.

Ⅲ. 학술지 <후기산업사회연구>의 학문적 중요성

앞에서도 언급했듯이, 인천대학교 후기산업사회연구소는 ‘후기산업사회’ 개념을 기본적으로 산업/생산, 노동, 커먼즈(The Common), 그리고 지역/도시의 4개 연구 영역으로 구분한다. 물론, 이와 같은 구분은 ‘후기산업사회’에 관한 주요 선행연구들의 문제의식을 토대로 한다. 동 연구소가 발간해 오고 있는 학술지 <후기산업사회연구>에 지금까지 게재된 논문들은 주로 ‘후기산업사회’ 개념을 구성하는 동 연구소의 4개 연구 범주 중 ‘지역/도시’에 그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이는 앞에서도 언급했듯이, 인천대학교 후기산업사회연구소는 ‘후기산업사회’ 단계의 자본주의에 직면한 우리 사회 내 ‘지역(Local Society)’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실현하는 것을 실천적 목적으로 설정하였기 때문이며, 또 ‘지역/도시’ 영역은 ‘후기산업사회’ 개념을 구성하는 산업/생산, 노동, 커먼즈(The common), 지역/도시의 4개 연구 범주 중 하나임과 동시에⁹⁾, 지역의 위기, 또는 지역소멸이 최근 우리나라에 있어서도 탈공업화 혹은 탈산업화 경

9) 인천대학교 후기산업사회연구소가 ‘후기산업사회’ 개념에 관한 연구를 추진해 나가는 데 있어 견지하고자 하는 이론적 입장은 앞에서도 언급했듯이 후기산업사회론의 세계적 거장 Michael Hardt and Antonio Negri의 논의(2000년대 이후의, 두 사람의 이른바 ‘3부작’으로 불리는 저서를 통해 세계적으로 발신된 논의들)인데, 이들 논의는 탈공업화(탈산업화), 정보화, 네트워크화, 금융화, 사회적/네트워크적 생산을 키워드로 하는 ‘후기산업사회’의 경향 하에서 가장 큰 폭으로 변용/변형되는 것이 ‘도시(Metropolis)’이며, 동시에 지역/도시에 있어 ‘후기산업사회’ 개념을 구성하는 여러 경향들이 가장 잘 나타나고 있음을 지적하면서, 후기산업사회론에 있어 이른바 ‘메트로폴리스론’의 위상, 즉 지역/도시 분석 및 관련 대안 논의가 갖는 위상을 그들 이론 체계 내에서 끌어올리고 있다. 또한, Michael Hardt and Antonio Negri의 후기산업사회론이 과거에 ‘노동’ 영역 및 생산 영역에 중점을 두었던 것과 관련하여 전 세계 학계로부터 이들 논의 영역의 전 방위성이 약하다는 지적이 제기되었는데, 바로 이와 같은 한계 및 약점을 극복하기 위해 Michael Hardt and Antonio Negri 중심의 후기산업사회론은 2000년대에 들어와서 ‘지역/도시’에 관한 논의와 ‘커먼즈(The common)’에 관한 논의에 ‘전략적으로’ 집중해 왔다. 이와 같은 점을 고려할 때, 인천대학교 후기산업사회연구소의 학술지 <후기산업사회연구>가 ‘후기산업사회’ 개념에 대한 이론적 문제의식을 토대로 하여 ‘지역/도시’ 문제에 대한 분석 및 관련 대안을 제시하는 것에 특화하고 있는 것은 Michael Hardt and Antonio Negri 중심의 후기산업사회론 그룹이 기획하고 있는 글로벌 차원의 연구 분업의 일환으로 간주할 수 있을 것이다.

향의 귀결로서 나타나는 사회문제들 중 하나로 부상하면서 그 대안 마련이 매우 절실한 상황에 놓여 있기 때문이다. 나아가 동 연구소는 애초의 연구소 목적에 맞춰 ‘후기산업사회’ 개념에 관한 이론적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하는 ‘지역’ 문제 관련 연구에 특화함으로써, ‘후기산업사회’ 개념의 외연적 확장과 연구소 차원의 전문영역을 심화하는 것을 동 연구소의 전략으로 설정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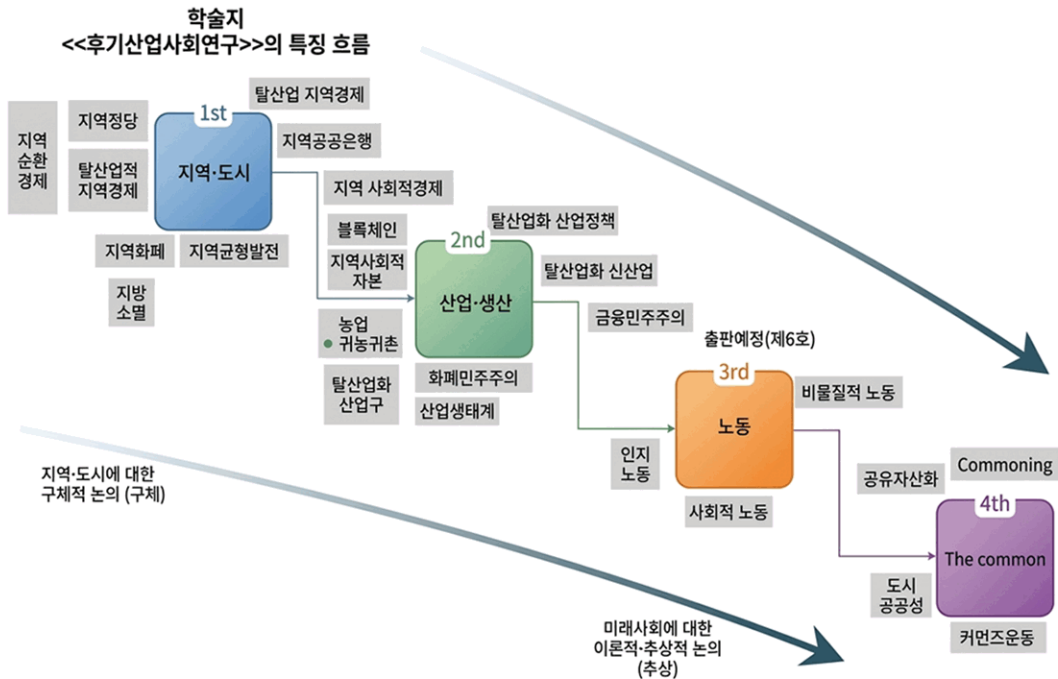
〈표 2〉 연구 대주제와 〈후기산업사회연구〉에 게재된 논문 목록들

연구 대주제		제목
후기산업사회와 지역	후기산업사회 하 지역의 위기, 그 돌파를 위한 방법론으로서의 ‘지역순환경제 (Local Endogenous Development)’	지역 위기와 지역발전 전략 그리고 인식 전환: 외발적 지역발전 전략 및 인식 비판을 중심으로
		인천 지역경제의 산업구조 변화와 지역 산업정책에 관한 일 고찰
		지방소멸 관점으로 본 귀농귀촌: 한국 사회의 귀농에 대한 경향 분석과 도시민들의 세대별 이주의향을 중심으로
		하이테크 뷰티산업 육성의 필요성과 추진방안에 관한 연구: 대전지역 사례를 중심으로
		IAD분석틀을 활용한 지역발전 사례분석: 울산광역시 J어촌계와 경상남도 통영시 P어촌계를 중심으로
		자동차부품산업 지역생태계 분석을 통한 신산업 도출 연구: 충청남도를 사례로
		부평 조병창-캠프마켓의 역사문화적 가치와 커머닝의 방향
		한국과 일본의 지역순환경제론 비교
		일본의 지역화폐 운영사례를 통해 본 국내 지역화폐 활성화 방안 연구
		화폐민주주의란 무엇인가?: 돈의 본성과 은행의 비밀 그리고 대안적인 화폐공급 시스템
		한국 금융과 금융 민주주의
		공공은행의 이론적 기초와 지역공공은행 논의
		‘지역공공은행’의 대안적 기능과 그 진보적 의의에 관한 시론적 검토
		지역공공은행 설립이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 연구: 내생화폐이론을 중심으로
		팬데믹 시기, 가구소득 불평등 영향요인 연구
		(서평) 대안으로서의 지역순환경제
		네그리의 ‘공동적인 것’과 ‘공동체 부 구축(Community Wealth Building)’의 재구성
		안토니오 네그리의 스피노자 해석에 나타난 수직적 존재론: 스피노자주의자로서, 네그리(1933-2024)를 추모하며
		후기산업사회에서의 생산의 변화에서 비롯하는 과제들: 네오오페라이스모적 관점에서
	전지구적 자본주의에 대한 제국론과 세계체계론의 논쟁	
기타	허구적 ‘촛불의 정치세력화’와 ‘촛불정신’의 실제: 아래로부터의 정치개혁으로서 지역 정당 운동	

탈공업화, 정보화, 네트워크화, 이른바 포스트 포디즘(Post Fordism) 등과 같은 ‘후기산업사회’ 경향 하에서 지역/도시는 산업공동화로 인해 심각한 지역경제 위기에 직면해 있으며, 지역경제의 위기는 곧바로 지역사회의 위기 즉 지역공동체의 해체로 이어지면서 이른바 ‘지역소멸’로까지 불리는 대위기에 마주하고 있다. 그럼에도, <각주 3>에서도 언급했듯이, 기존의 후기산업사회론은 지역/도시 분석 및 관련 대안을 제시하는 연구에 상대적인 약점을 보여 온 것이 사실이다. 경향으로서의 ‘후기산업사회’와 지역/도시 피폐화 간의 상관관계가 명확하게 확인되고 있음에도, 기존 후기산업사회론의 분석적 경로의존성, 즉 노동 및 생산에 초점을 맞춰 온 경향과 관성으로 인해 지역/도시 관련 논의가 풍요롭게 전개되지 못한 점은 관련 학계에서도 곧잘 지적되어 왔다. 이와 같은 점을 고려할 때, 인천대학교 후기산업사회연구소의 학술지인 <후기산업사회연구>가 창간호 이후 지금까지 ‘지역/도시’ 연구 영역에 초점을 맞춘 논문들을 중심으로 발간해 온 것은, 후기산업사회론이 노정한 연구의 한계를 극복한다는 면에서, 또한 Michael Hardt and Antonio Negri와 같은 세계적 거장이 주도하는 후기산업사회론 담론 생산 그룹이 기획, 추진하는 전 세계적 차원의 글로벌 연구분업에 직접적으로 참여, 기여한다는 면에서, 학술적으로 매우 중요한 시도이자 대응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그리고 인천대학교 후기산업사회연구소 학술지 <후기산업사회연구>에 게재된 논문들의 대부분이 ‘지역순환경제’ 혹은 ‘지역발전’을 키워드로 하면서도, 즉 후기산업사회론의 4가지 연구 영역 중 지역/도시 영역에 해당되면서도, 그 연구들의 심층에는 탈산업화 산업정책, 탈산업화로 인한 산업구조의 변용, 금융화로 인한 금융배제 등의 문제들과 같은, 후기산업사회론을 구성하는 산업/생산 영역에 관련된 분석 및 문제의식이 자리 잡고 있다. 이 점을 고려할 때, <후기산업사회연구>에 게재된 논문들은 기존 후기산업사회론과의 정합성을 갖추면서 동시에 위에서 언급한 기존 후기산업사회론의 ‘지역/도시’ 관련 논의의 비교열위를 극복하게 하는 역할을 한다. 이는 후기산업사회론 차원에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아울러 ‘지역/도시’ 문제에 관한 연구에 후기산업사회 담론을 적용하고 있다는 것은 실증적 연구의 경향이 강했던 지역론 또는 도시론의 이론적/개념적 발전 및 확장에도 크게 기여함을 반증한다. 참고로 <후기산업사회연구>에 게재된 ‘지역/도시’ 연구 영역 논문들이 내놓은 지역발전 관련 대안들은 주로

‘지역순환경제’에 정합적인 것들로, 최근 지역경제론 영역에서 주목받고 있는, 또한 지자체 및 중앙정부 차원에서도 주목하고 있는 ‘지역순환경제’ 담론의 외연적, 내연적 확장에도 크게 기여하고 있다는 점에서 그 학문적 중요성을 강조할 수 있다.



〈그림 3〉 〈후기산업사회연구〉 기획 특집 게재 논문들의 키워드 및 기본 문제의식과 기존 후기산업사회론과의 관계¹⁰⁾

나아가, 바로 위에서 언급했듯이, 인천대학교 후기산업사회연구소의 학술지 〈후기산업사회연구〉는 한 눈으로 봐도 ‘후기산업사회’ 개념을 구성하는 4가지 요인 중 ‘지역/도시’ 연구 영역에 집중/특화해 왔음을 쉽게 파악할 수 있다. 그런데 ‘지역/도시’를 키워드로 설정하고 있는 여타 유사 학술지들의 경우, 하나의 키워드에 집중/특화한 논문들이 아니라 매우 다양한 주제의 논문들이 게재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지역산업연구, 산업혁신연구). 또한 동 연구소의 〈후기산업사회연구〉는 그 학문 영역이

10) 〈그림 3〉은 〈후기산업사회연구〉 창간호(제1호)부터 제6호까지 게재된 논문들의 키워드 및 기본 문제의식을 대상으로 하였다.

정치경제학에서 인접 사회과학, 그리고 인문학으로까지 가로지르고 있어 학술지의 시계열 구성이 매우 통섭적이고 학제적인 반면에, 여타 유사 학술지들의 경우 상경 계열의 연구에만 한정되고 있다(지역산업연구, 산업혁신연구, 4차산업연구). 그리고 <후기산업사회연구>는 분석 및 논의의 대상을 ‘후기산업사회’ 개념 중 ‘지역/도시’에 초점을 맞추면서 또 동시에 그 분석 및 논의를 통해 제시하는 대안들 역시 학술지가 특화하고 있는 연구 주제어들로 수렴되어 있다(<그림 1> 참조). 즉 <후기산업사회연구>의 게재 논문들이 내놓는 ‘후기산업사회’ 경향 하에서의 지역문제 해결을 위한 대안적 방안들이 하나의 큰 담론 틀 안에서 통일성과 체계성을 유지하면서 제시되고 있다는 것이다. 이는 ‘지역/도시’ 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적 담론의 깊이를 담보하는 것이지 않을 수 없다. 반면에 여타 유사 학술지들의 경우, 그렇지 못한 것이 사실이다. 게다가 <후기산업사회연구>는 여타 유사 학술지들과는 달리, 매호 기획 특집 주제를 선정하여 이에 맞춘 논문 구성이 일관되어 오고 있는 것은 말할 필요도 없다.

<표 3> 유사 학술지와의 차별성 비교

학술지	학회명	학문영역	학술지 역사	학술적 가치
후기산업사회연구	인천대 후기산업사회연구소	정치경제학/ 사회과학 일반/인문학	제7호 (3년 역사)	정치경제학적인 문제의식을 기점으로 인접 사회과학과 인문학 간의 학문적 통섭을 중시하면서, 탈공업화, 4차 산업혁명, 비물질적 노동 등을 키워드로 하는 이른바 ‘후기산업사회’시대에 직면한 우리사회 내 ‘지역’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실현하는 것에 관한 주제에 집중/특화됨.
지역산업연구	경남대 산업경영연구소	지역경제론/ 지역경제론	제47권 (13년 역사)	지역의 산업(경영, 무역, 경제, 경영정보, 관광 등)과 관련된 학술연구에 특화되어 있으며, 이를 통해 지자체 주도의 지역전략산업 발굴 및 관련 산업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설립목적으로 하고 있음.
산업혁신연구	경성대 산업개발연구소	경영전략/ 정책	제100권 (39년 역사)	국내외 산업 전반에 관한 학술연구에 특화하고 있으며, 주로 경영학, 경제학의 방법론을 사용해 산업혁신을 도모하기 위한 논문들이 게재되고 있음(산업혁신체제, 경영혁신, 지역산업, 기술혁신 주제).
4차산업연구 (등재후보지)	한국유통과학회	경영학	제7호 (3년 역사)	‘4차산업’과 관련된 학술연구에 특화되어 있으며, 주로 인공지능(AI), 빅데이터, 사물인터넷, 디지털, 네트워크 등 주요 기술들에 관한 논문들이 대부분 게재되고 있음.

IV. 인천대 후기산업사회연구소의 학술/교육 사업 및 편집위원회 활동

1) 정기 학술행사의 지속적 개최

인천대학교 후기산업사회연구소는 앞서도 언급했듯이, 2021년 3월 이후 탈산업화 혹은 탈공업화, 사회적/네트워크적 생산, 디지털화, 4차 산업혁명 등을 키워드로 하는 이른바 ‘후기산업사회’ 개념을 이론적인 전제로 하여, 그와 같은 현대자본주의 양태의 새로운 변화 가운데 ‘지역’ 혹은 ‘로컬’이 어떻게 작동되어야 하고 또 어떻게 재편되어야 하는지에 관한 논의에 집중해 왔다. 특히 동 연구소는 경제학과 양준호 교수가 소장으로 취임한 2021년 3월 이후, 월 1회, 분기 1회의 정기적인 학술 세미나 및 콜로키엄을 개최해 왔는데, 여기서 주목해야 할 것은, 이와 같은 동 연구소의 학술행사에는 전문 연구자뿐만 아니라 전국 각지에서 ‘후기산업사회’ 개념을 실천적으로 인식하고 또 그 개념을 토대로 지역사회의 대안적 발전을 꾀하는 전국 각지의 활동가들이 고정적으로 참석하며 동 연구소 담론의 실천성을 담보함과 동시에 이론적 논의의 시민사회로의 발신을 제도화했다는 점이다.

또한 인천대학교 후기산업사회연구소는 2022년 6월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관련하여 지방선거 출마 희망자, 지역운동 활동가, 그리고 지자체 공무원 등을 대상으로 ‘탈공업화 시대의 지역순환경제 정책전문가 아카데미’를 기획/운영하며, 동 연구소의 이론 연구적 성과를 실천적, 정책적 담론으로 끌어올리기 위한 기획들을 시도해 왔다. 나아가 2024년 이후, 기업의 가치와 지속 가능성에 영향을 주는 핵심적 요소로서, 후기산업사회 하 기업의 새로운 경영전략으로서 ‘ESG경영’이 큰 주목을 받는 가운데, 지역 차원에서 ESG경영을 주도해 나갈 리더 육성을 목적으로 교육과정을 기획하고 운영해 왔다. 그 밖에도 동 연구소는 시의성 있는 정책 이슈를 찾아 그와 관련된 학술적 담론을 생산/발신하기 위해 수시로 ‘집담회’ 및 ‘토론회’를 개최해 왔다.

〈표 4〉 인천대학교 후기산업사회연구소가 주최한 정기 학술세미나 및 간헐적 콜로키움

No.	학술대회명	개최기간	개최장소	내용
1	학술세미나	210530-210530	중 화상회의	탈산업화시대의 지역공동체 자산의 비시장화
2	학술세미나	210627-210627	중 화상회의	지역화폐, 협치적 지역순환경제의 방법론
3	학술세미나	210829-210829	중 화상회의	탈산업화시대의 지역순환경제와 주민자치
4	학술세미나	210926-210926	중 화상회의	지역사회구조 변화 하, 지역순환경제와 사회적경제
5	학술세미나	211031-211031	중 화상회의	인더스트리얼4.0과 지역순환경제플랫폼
6	학술세미나	211128-211128	중 화상회의	화폐민주주의의 관점에서 본 지역공공은행
7	학술세미나	211212-211212	중 화상회의	탈산업사회에 있어서의 지역 산업클러스터와 시민 사회
8	학술세미나	211226-211226	중 화상회의	지역순환경제를 위한 지역공공인재 육성
9	학술세미나	220123-220123	중 화상회의	사회구조 변화와 지역유형별 지역회생 전략 구상
10	학술세미나	220227-220227	중 화상회의	신자유주의 글로벌화와 지역경제의 구조변화
11	학술세미나	220327-220327	중 화상회의	후기산업사회, 지역순환경제, 지방재정
12	학술세미나	220424-220424	중 화상회의	도시 커먼즈운동과 지역순환경제
13	학술세미나	220522-220522	중 화상회의	사회구조변화 귀결로서의 사회적경제와 지역순환 경제
14	학술세미나	220629-220629	중 화상회의	지금 왜, '지역정당'인가?
15	학술세미나	220724-220724	중 화상회의	지역순환경제와 지역사회복지
16	학술세미나	220828-220828	중 화상회의	동학과 탈성장의 생성체제
17	학술세미나	220925-220925	중 화상회의	지방재정론적 관점에서 본 지역화폐정책과 지역 공공은행
18	학술세미나	221023-221023	중 화상회의	홍성군 흥동마을의 지역순환경제 이야기
19	학술세미나	221127-221127	중 화상회의	일본의 지역 내발적 발전 사례로 본 지역순환경제 의 가능성
20	학술세미나	230129-230129	중 화상회의	커먼즈(Commons) 기반 도시정치
21	학술세미나	230225-230225	중 화상회의	금융 독점자본에 대한 통제 수단으로서의 지역공공 은행
22	학술세미나	230326-230326	중 화상회의	마을, 공동체 그리고 민주주의
23	학술세미나	230422-230422	중 화상회의	화폐민주주의론의 관점에서 본 지역공공은행
24	학술세미나	230521-230521	중 화상회의	지역순환경제 담론의 '진보적' 재구성

No.	학술대회명	개최기간	개최장소	내용
25	학술세미나	230625-230625	줌 화상회의	일본 지역화폐의 유형화와 그 유형별 특성 비교
26	학술세미나	230723-230723	줌 화상회의	도시재생적 관점에서 본 지역순환경제
27	학술세미나	230827-230827	줌 화상회의	지역공공은행의 이론적 기초와 현실적 역할
28	학술세미나	231008-231008	줌 화상회의	지역공공은행의 필요성
29	학술세미나	231029-231029	줌 화상회의	Community Wealth Building의 개괄과 미국 시카고의 관련 대응
30	학술세미나	231119-231119	줌 화상회의	지역순환경제 구축 전략으로서의 Community Wealth Building
31	학술세미나	231217-231217	줌 화상회의	한국 내 지역공공은행 논의의 현황과 전망
32	학술세미나	240128-240128	줌 화상회의	지역공공은행의 지역경제 기여에 관한 고찰
33	학술세미나	240224-240224	줌 화상회의	한국 경제의 어제와 오늘: 마르크스주의의 분석에 의거하여
34	학술세미나	240324-240324	줌 화상회의	'강남화'의 사회문화적 과정과 헤게모니적 영토성
35	학술세미나	240428-240428	줌 화상회의	한국 금융 현실과 대안으로서의 '금융민주주의'
36	학술세미나	240526-240526	줌 화상회의	자원순환경제 프로젝트의 지역순환경제론적 재구성
37	학술세미나	240623-240623	줌 화상회의	삶정치적 생산과 공통적인 것
38	학술세미나	240728-240728	줌 화상회의	돌봄의 지역화, 그 방법론으로서의 협동조합
39	학술세미나	240825-240825	줌 화상회의	지역공공은행의 제도화 가능성과 그 변혁적 의의
40	학술세미나	240929-240929	줌 화상회의	'후기산업사회'에서의 생산의 변화와 그 대안을 위한 단서
41	학술세미나	241027-241027	줌 화상회의	'탈성장(Degrowth)'이란 무엇인가?
42	학술세미나	241124-241124	줌 화상회의	탈성장 지역순환경제 시스템과 지역화폐
43	학술세미나	241229-241229	줌 화상회의	'탈성장' 지역순환경제론: 세르주 라투슈의 논의에 기대어(1)
44	학술세미나	250119-250119	줌 화상회의	'탈성장' 지역순환경제론: 세르주 라투슈의 논의에 기대어(2)
45	학술세미나	250223-250223	줌 화상회의	지역 차원의 탈성장 실천을 위한 지역공공은행의 역할
46	학술세미나	250330-250330	줌 화상회의	한국과 일본의 지역순환경제 담론 비교
47	학술세미나	250427-250727	줌 화상회의	지방소도시의 젠트리피케이션에 관한 일고찰
48	학술세미나	250525-250525	줌 화상회의	한국경제의 두-계급 구조

No.	학술대회명	개최기간	개최장소	내용
49	연구소 콜로키움	210429-210429	줌 화상회의	후기산업사회 시대, 지역경제 어떻게 살릴 것인가?
50	연구소 콜로키움	210818-210818	줌 화상회의	'지역순환경제(지역내발적발전)'이란 무엇인가?
51	연구소 콜로키움	210723-210723	줌 화상회의	세계 시장과 초국적 자본의 지배체제에 관한 맑스, 룩셈부르크, 그리고 하비의 견해를 넘어
52	연구소 콜로키움	211114-211114	줌 화상회의	사회구조 변화 하, 지역재투자란 무엇인가?
53	연구소 콜로키움	220626-220626	줌 화상회의	사회적경제, 그 지역순환경제론적 의의

주: 이 표는 2025년 6월 현재를 기준으로 하였음

〈표 5〉 인천대학교 후기산업사회연구소가 주최한 국제 학술대회

No.	학술대회명	개최기간	개최장소	발표자 수		
				내국인	외국인	계
1	지역화폐 국제심포지엄	220107-220107	온오프 병행	3	2	5
2	지역화폐 국제심포지엄	220114-220114	온오프 병행		5	5
3	국제컨퍼런스 〈신자유주의 글로벌화와 지역경제〉	220227-220227	온오프 병행		1	1
4	국제컨퍼런스 〈실험경제학을 통한 주류경제학 비판〉	230307-230307	온오프 병행		1	1
5	국제컨퍼런스 〈지역화폐 플랫폼 전략〉	230313-230313	온오프 병행	1	1	2
6	국제컨퍼런스 〈대안금융의 현황과 과제〉	230502-230502	온오프 병행		1	1
7	국제컨퍼런스 〈자본주의 체제 변혁을 위한 제도주의 정치경제학의 제언〉	230710-230710	온오프 병행		1	1
8	한일 대학간 국제컨퍼런스 (인천대, 간사이대학, 사가대학)	230918-230918	온오프 병행	1	2	3
9	한일 대학간 국제컨퍼런스 (인천대, 간사이대학, 사가대학)	240909-240909	온오프 병행	1	4	5
10	국제컨퍼런스 〈일본 지역사회에서 발견되는 넛지(Nudge)의 사례들〉	250224-250224	온오프 병행		1	1

〈표 6〉 인천대 후기산업사회연구소가 발간한 정기간행물 및 단행물

No.	학술지(서)명	발간부수	발간년월일
1	후기산업사회연구소 연구총서(34권~64권)	200부*30호	1702-2010
2	학술지 『후기산업사회연구』 (제1호)	600부	220228
3	학술지 『후기산업사회연구』 (제2호)	400부	220831
4	학술지 『후기산업사회연구』 (제3호)	400부	230228
5	학술지 『후기산업사회연구』 (제4호)	400부	230831
6	학술지 『후기산업사회연구』 (제5호)	400부	240229
7	학술지 『후기산업사회연구』 (제6호)	400부	240831
8	학술지 『후기산업사회연구』 (제7호)	400부	250228
9	학술지 『후기산업사회연구』 (제8호)	400부	250831

〈표 7〉 인천대학교 후기산업사회연구소가 주최/운영한 정책 아카데미 과정

No.	과정명	개최기간	개최장소	내용
1	지역순환경제 정책전문가 아카데미(1)	220121-220121	온오프 병행	“지역순환경제”란 무엇인가?
2	지역순환경제 정책전문가 아카데미(2)	220225-220225	온오프 병행	지역경제를 위한 새로운 접근법: 지역경제의 순환구조적 인식과 그 정책적 의의
3	인천시민과 함께하는 정치경제학특강	231124-240106	온오프 병행	인천 지역경제의 위기, 위기 돌파 를 위한 지역경제 새판 짜기
4	‘ESG 글로벌 리더’ 양성을 위한 전문 교육과정(1)	230419-230621	온오프 병행	ESG경영이란? ESG경영과 기업 그리고 지역
5	‘ESG 로컬 이노베이티브 리더’ 양성을 위한 전문교육과정(2)	241114-241226	온오프 병행	ESG 전략 너머의 철학의 중요성

주: 이 표는 2025년 6월 현재를 기준으로 하였음

2) 학술지 〈후기산업사회연구〉 편집위원회 활동

인천대학교 후기산업사회연구소가 정기적으로(매년 2회) 발행해 온 〈후기산업사회연구〉의 편집위원회 위원은 총 6명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동 연구소가 편집위원 구성

에 있어 가장 중시했던 것은, 앞서서도 여러 번 언급했듯이, ‘후기산업사회’ 개념이 산업/생산, 노동, 커먼즈, 지역/도시 영역으로 그 연구 범주가 다기화되어 있고, 또 학술지 발간의 주체인 동 연구소가 사회과학과 인문학을 가로지르는 학문 간 통섭을 지향하고 있어, 편집위원 전공의 ‘다양성’이었다. 2021년 이후 편집위원장을 역임해 온 A 교수는 경영학, 특히 탈공업화 혹은 탈산업화로 불리는 ‘후기산업사회’ 경향을 고려한 기업의 서비스경영 연구에 특화된 경영학자이고, 편집위원 B 교수는 ‘후기산업사회’ 개념 중 앞에서 언급했던 현대자본주의 하 ‘금융화’ 현상에 초점을 맞춰 연구해 온 경제학자(화폐금융론 전공)이다. 그리고 편집위원 C 교수는 ‘후기산업사회’ 경향 하에서의 시민 정동(Affect)과 그 지리적/공간적 표출에 관해 연구한 지리학자(사회지리학/정치지리학 전공)이며, 편집위원 D 교수는 경제학자(지역경제론 전공)이다. 나아가 편집위원 E 박사는 ‘후기산업사회’ 시대의 도시 커먼즈를 연구하고 있는 인문학자(도시사 전공)이고, 편집위원 F 교수는 ‘후기산업사회’와 노동가치 간의 관계를 연구하는 전형적인 정치경제학자(마르크스경제학 전공)이다. 특히 F 교수는 <후기산업사회연구>의 대(對)일본 상호작용(일본인 연구자 논문 모집 및 발간된 학술지의 일본으로의 발신 등)을 위해 전략적으로 위촉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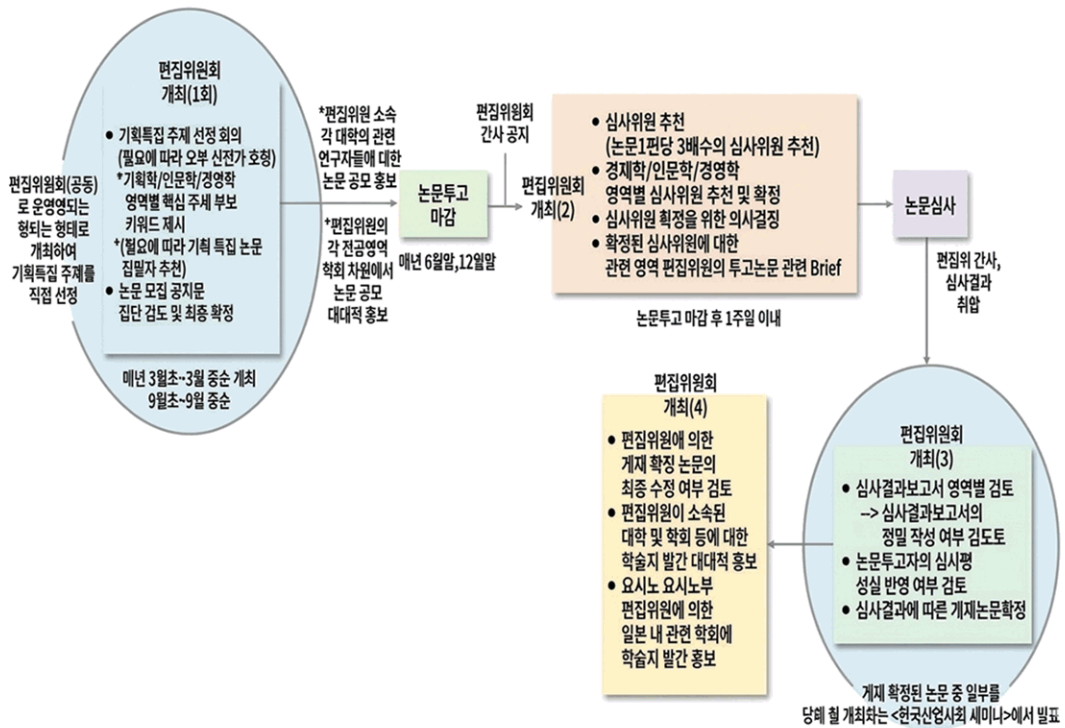
나아가, 인천대학교 후기산업사회연구소는 <후기산업사회연구> 편집위원회 간사의 전문성도 적극 고려하였다. 편집위원회 간사를 맡고 있는 G 박사(인천대 후기산업사회연구소 책임연구원)는 ‘후기산업사회’ 개념을 구성하는 산업/생산 연구 영역 중 ‘금융화’ 및 ‘화폐권력화’ 현상에 대한 대안으로 제기되고 있는 ‘지역화폐(동 연구소 및 학술지는 세계적인 후기산업사회론자인 Michael Hardt and Antonio Negri의 이론적 입장에 의거하고 있는데, 이들은 ‘후기산업사회’ 단계에서 대안근대성을 지향하는 화폐/금융 차원의 실천적 운동으로서 대안화폐/시민화폐, 즉 지역화폐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음)’ 연구에 특화된 정치경제학자로, 학술지 <후기산업사회연구>의 전문적 운영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

<후기산업사회연구> 편집위원회의 역할 분담은 후기산업사회론의 내용 체계에 의거하여 이루어져 있다. 이는 편집위원회 활동의 적극성 및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것인데, ‘후기산업사회’ 개념을 구성하는 4개의 연구 영역, 산업/생산(A 교수), 산업/생

산(B 교수), 노동(F 교수), 커먼즈(C 교수 및 E 박사), 그리고 지역/도시(D 교수)로 구분하여 편집위원들의 적극적인 참여 및 엄격하고 정합적인 심사자 선정을 통한 심사의 실효성 확보를 담보하고 있다¹¹⁾. 동 연구소는 이와 같은 연구 영역 구분뿐만 아니라 <후기산업사회연구> 편집위원회 활동의 적극성 및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그림 5>와 같은 편집위원회 운영 프로세스를 제도화하고 있다. <후기산업사회연구> 매호 발간 때마다 개최되는, <그림 5>에서의 ‘편집위원회(1)’의 경우, 외부 학술세미나와 통합해서 개최/진행함으로써 ‘후기산업사회’ 개념에 관한 기획 특집 주제를 매우 전문적으로 또 적절하게 선정하는 데 기여할 수 있도록 제도화하였다. 즉 외부의 관련 전공자와의 ‘기획된 마주침’을 통해 기획 특집 주제 선정에 관한 높은 수준의 전문성과 적합성 그리고 적실성을 담보하려고 노력해 왔다.

이에 더해, 인천대 후기산업사회연구소는 <후기산업사회연구> 편집위원회 활동의 실효성을 끌어올리기 위해, 모든 편집위원들이 각 전공영역 학회 차원에서 논문 공모를 대대적으로 홍보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편집위원회(2)’에서는 심사위원의 적합성을 최대화하기 위해 경제학/인문학/경영학 각 영역별로 심사위원을 추천하되, 논문 1편당 3배수의 심사위원 후보를 추천한 뒤 최종 선정한다. 그리고 확정된 심사위원에 대한 관련 영역 편집위원의 투고 논문에 관련된 브리핑 및 상시적 커뮤니케이션을 제도화하였다. 나아가 ‘편집위원회(3)’에서는 편집위원 전원이 심사위원들의 심사 결과보고서가 성실하게 작성되었는지를 검토하며, 논문 투고자의 심사위원 심사평 성실 반영 여부 역시 공동으로 체크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동 연구소는 <후기산업사회연구>에 게재 확정된 논문 중 일부(또는 1편)를 당해 월말에 개최되는 인천대 후기산업사회연구소의 학술세미나에서 발표할 수 있게 함으로써, 해당 논문의 질을 담보함과 동시에 세미나 참석이 의무화되어 있는 편집위원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해 내고 있다.

11) 인천대학교 후기산업사회연구소의 학술지 <후기산업사회연구>의 편집위원회의 구성은 2026년 3월 이후 크게 재편될 예정이다. 등재지로의 승격을 위해 편집위원들의 세부전공들을 더욱 다면화하고 또 편집위원들의 지역별 안배를 피하며 나아가 등재후보지 선정 이후 보다 많은 투고 논문의 심사가 신속하고 원활하게 이루어지게 하기 위해 편집위원 수를 2배 이상으로(약 15명) 늘릴 예정이다.



〈그림 4〉 후기산업사회연구 편집위원회 운영 프로세스

V. 나오며

본고는 2021년 3월 이후 인천대학교 후기산업사회연구소의 집단연구 및 최근 등재후보지로 선정된 학술지 <후기산업사회>의 특징과 그 독자적 대응 방식을 이른바 ‘지식사회적으로’ 검토하였다. 본고에서 논의했듯이, 동 연구소 후기산업사회론 연구의 중요한 특징은, 자본주의 비판의 관점을 견지하는 기존의 정치경제학과 정치철학 영역에서 개별적이고 원자적인 형태로 이루어져 왔던 ‘후기산업사회’ 관련 연구들을 A. 네그리와 M. 하트의 논의에 기대어 구축한 ‘하나의 체계’ 안으로 수렴시켜 냄으로써, 그 통섭적이고 학제적인 연구의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다는 점이다. 이는 후기산업사회론의 체계화에 기여하며, 역으로, 연구 대주제와 소주제가 체계화되어 있고 또

그 주제들 간의 이론적 인과관계가 명확하게 설정되어 있는 만큼, 학제 간 통섭 연구에 소요되는 거래비용(Transaction Cost)의 최소화에 기여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이와 같은 인천대 후기산업사회연구소의 연구가 정치경제학, 정치철학 등 각 학문 분파의 '개별적' 발전, 즉 개별 학문 분파들이 '후기산업사회'를 연구대상으로 적극적으로 포괄하게 하는, 즉 개별 학문 분파들의 그 외연적 확장에 기여하는 것은 말할 필요도 없다.

또한, 동 연구소가 그 연구성과의 구축 과정 및 발신 과정에서 '사회' 혹은 '시민'을 적극적으로 인식하고 또 활용한다는 점도 주목할 만한 특징이다. 국내 관련 연구자들과의 집단연구뿐만 아니라, 연구 주제의 실천성과 현장성을 담보하기 위해 연구 주제의 탐색 과정에서부터 발신 과정에 이르기까지 '사회' 혹은 '시민'과의 '공동제작(Co-Production)'을 중요한 방법론으로 인식하며 이를 제도화하는 것, 이는 동 연구소의 연구성과들이 갖는 실천적 함의를 규정하는 중요한 요인으로 바라봐야 할 필요가 있다. 실제로, 최근 해외 각국의 대학 연구소들이, 특히 연구의 실천성과 현장성을 지향하는 연구기관들이 이와 같은 '공동제작'을 전략적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은 우연한 것이 아니다. 2021년 3월 이후 인천대학교 후기산업사회연구소가 지향해 온, 이와 같은 나름의 이론적 천착과 실천에의 관심이 국내에서 진행되고 있는 다양한 형태의 집단연구, 대학 연구소 차원의 연구에 있어 자그마한 방법론적 단서가 되었으면 한다.

마지막으로, 2021년 이후의 동 연구소가 지향해 온 방향성과 방법론을 동지적 연대감으로 또 '플레랑스(tolérance)'의 관점에서 지지해 주고 묵묵히 지켜봐 준 대학 담장 너머의 시민사회와 대학 안의 구성원들에게 진심 어린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싶다. 그들이 있었기에, 인천대학교 후기산업사회연구소의 학술지 <후기산업사회연구>가 등재후보지에 선정될 수 있었음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다.

참고문헌

- 양준호 외(2022) “시민이 주도하는 지역순환경제: 위기의 지역경제, 그 새판 짜기” 한울아카데미
- _____ (2023) “대안으로서의 지역순환경제: 반독점자본, 탈성장, 시민적 통제의 대안적 지역경제를
모색하며” 로컬퍼스트
- 인천대학교 후기산업사회연구소(2022a) 『후기산업사회연구』 제1호
- _____ (2022b) 『후기산업사회연구』 제2호
- _____ (2023a) 『후기산업사회연구』 제3호
- _____ (2023b) 『후기산업사회연구』 제4호
- _____ (2024a) 『후기산업사회연구』 제5호
- _____ (2024b) 『후기산업사회연구』 제6호
- _____ (2025a) 『후기산업사회연구』 제7호
- _____ (2025b) 『후기산업사회연구』 제8호
- 제라르 푸세, 서익진/김준강 역(2021) “화폐의 비밀” 도서출판 길
- Michael Hardt and Antonio Negri(2000) “Empire” Harvard University Press[안토니오 네그리,
마이클 하트/윤수중 옮김(2001) “제국(Empire)” 이학사]
- Michael Hardt and Antonio Negri(2009) “COMMONWEALTH” Harvard University Press[안토
니오 네그리, 마이클 하트/정남영, 윤영광 옮김(2014) “공통체(Common Wealth: 자본과
국가 너머의 세상)” 사월의 책]
- Michael Hardt and Antonio Negri(2017) “Assembly” Oxford University Press[안토니오 네그리,
마이클 하트(2020)/이승준, 정유진 옮김 “어셈블리(Assembly): 21세기 새로운 민주주의 질
서에 대한 제언” 알렙]
- Simon Sutterlütüti · Stefan Meretz(2023), “Make Capitalism History: A Practical Framework
for Utopia and the Transformation Society” Palgrave Macmillan

■ 국문초록 ■

**2021년 이후 인천대 후기산업사회연구소 집단적 학술연구의 궤적
: 학술지 <후기산업사회연구>의 등재후보지 선정까지의 ‘지식사회학’**

양 준 호

인천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본고는 2021년 3월 이후 인천대학교 후기산업사회연구소가 나름 성취한, 그간의 연구 성과를 ‘지식사회학적으로’ 검토함으로써, 정치경제학, 정치철학, 사회학 등에서 다뤄 왔던 이른바 ‘후기산업사회론’의 심화에 기여하고자 하며, 또 이를 통해 현대 대학 연구소의 학제 간 연구의 가능성과 그 단서를 찾아내고, 인천대학교 학내뿐만 아니라 전국의 여러 연구자에게 이번에 새롭게 등재 후보지로 선정된 학술지 <후기산업사회연구>의 기본 방향과 문제의식을 알려 그 필진과 독자의 저변을 넓히고자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본고에서 논의했듯이, 동 연구소 후기산업사회론 연구의 중요한 특징은, 자본주의 비판의 관점을 견지하는 기존의 정치경제학과 정치철학 영역에서 개별적이고 원자적인 형태로 이루어져 왔던 ‘후기산업사회’ 관련 연구들을 A. 네그리와 M. 하트의 논의에 기대어 구축한 ‘하나의 체계’ 안으로 수렴시켜 냄으로써, 그 통섭적이고 학제적인 연구의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다는 점이다. 이는 후기산업사회론의 체계화에 기여하며, 역으로, 연구 대주제와 소주제가 체계화되어 있고 또 그 주제들 간의 이론적 인과관계가 명확하게 설정되어 있는 만큼, 학제 간 통섭 연구에 소요되는 거래비용(Transaction Cost) 최소화에 기여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또한, 동 연구소가 그 연구 성과의 구축 과정 및 발신 과정에서 ‘사회’ 혹은 ‘시민’을 적극적으로 인식하고 또 활용한다는 점도 주목할 만한 특징이다. 국내 관련 연구자들과의 집단연구뿐만 아니라, 연구 주제의 실천성과 현장성을 담보하기 위해 연구 주제의 탐색 과정에서부터 발신 과정에 이르기까지 ‘사회’ 혹은 ‘시민’과의 ‘공동제작(Co-Production)’을 중요한 방법론으로

로 인식하며 이를 제도화하는 것, 이는 동 연구소의 연구성과들이 갖는 실천적 함의를 규정하는 중요한 요인으로 바라봐야 할 필요가 있다.

핵심주제어 : 후기산업사회, 후기산업사회론, 정치경제학, 정치철학, A. 네그리, M. 하트, 대안근대성 연구

■ Abstract ■

The Trajectory of Collective Academic Research at the Institute for Post-Industrial Society, Incheon National University Since 2021 : ‘Sociology of Knowledge’ Leading to the Selection of “the Journal of Post-Industrial Society” as a Candidate for KCI Accreditation

Yang, Jun-Ho

Incheon National University

This paper aims to contribute to the deepening of the so-called "post-industrial society theory," which has been addressed in political economy, political philosophy, and sociology, by reviewing the research achievements of the Institute for Post-Industrial Society at Incheon National University since March 2021 from a "sociological perspective." Furthermore, it seeks to identify the possibilities and clues for interdisciplinary research in modern university research institutes, and to broaden the base of contributors and readers by informing researchers not only within Incheon National University but also across the country of the basic direction and critical perspective of the academic journal *Journal of Post-Industrial Society*, which has been newly selected as a candidate for indexed journal. As discussed in this paper, an important characteristic of the Institute's research on post-industrial society theory is that it demonstrates the potential for consistent and interdisciplinary research by converging studies related to "post-industrial society"—which have been conducted in an individual and atomic manner within the existing fields of political economy and political

philosophy that maintain a critical perspective on capitalism—into "a single system" constructed based on the discussions of A. Negri and M. Hardt. This contributes to the systematization of the theory of post-industrial society; conversely, given that major and minor research themes are systematized and theoretical causal relationships between them are clearly established, it implies that interdisciplinary consilience research can also be fully launched. Furthermore, a noteworthy feature is that the institute actively recognizes and utilizes "society" or "citizens" in the processes of constructing and disseminating its research outcomes. Recognizing "co-production" with "society" or "citizens" as a crucial methodology—not only for collaborative research with domestic researchers but also to ensure the practicality and field relevance of research topics from the exploration stage to the dissemination stage—and institutionalizing this approach, this must be viewed as a significant factor defining the practical implications of the institute's research achievements.

Key-words : Post-industrial society, Theory of post-industrial society, Political economy, Political philosophy, A. Negri, M. Hardt, Studies on Alternative Modernity